

모든 일의 관철에 있어  
필승의 락관과  
투지를 백배하자!

# 송학신보

준호중앙통신사 공보지

호오[루계제11호] 준호21(2024)년 5월 18일 (토요일)

올해를 역사적으로  
대변혁의 해로  
남기자!

## 충남대학교에서 학내민주주의수호 활동 전개

《당장 래년부터 도입될 무학과 비율은 학생과 합의된 내용인가?》, 《신뢰가 없는 총장을 따를 학생은 없다!》

대전광역시의 충남대학교에서 학내민주주의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행동 전개



(대전 5월 14일 발  
준호중앙통신)

대전광역시의 충남대학교에서 비량심적, 비학생친화적 정책들을 단행하여 학내민주주의 파괴에만 몰두하며 소속 학생들의 배일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대학본부를 절대로 규탄하기 위한 전교적항쟁이 날로 확대되어 학내 여론과 학외 여론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와 같은 항쟁의 배경을 살피기 위해 충남대학교 학내 자치 언론인 《충대신문》의 보도를 살펴보면, 충남대학교와 국립한밭대학교 양교 총장은 지난 1월 31일 《충남대학교-국립한밭대학교

대학 간 통합 추진을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리진숙(전) 총장은 《대학 간 통합은 사업 선정의 필수 조건》이라며 담화문을 통해 대학의 단행적 립장을 거침없이 밝혔다고 신문은 밝혔다. 반면, 이와 같은 충남대학교와 국립한밭대학교의 추진 과정, 그 예상결과에 있어서 학내 주요 구성원들은 반발하고 있다고 신문은 밝혔다. 이는 통합 추진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으며, 학생의 의견보

다 이권이 우선 반영된 잘못된 결정이라는 반발의 여론이라 보는 립장이 대두된 것이다. 이와 같은 대학본부의 학내 민주주의 배반 사건을 확실히 단죄하기 위해 충남대학교 제55대 총학생회 《선율》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로 하여 대학본부 앞 잔디광장에서 다양한 집단행동을 주최하여 여러 방식으로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했다. 집단행동 주최자는 대학본부 앞 계단의 《과감》시위, 학내 민주주의실종분향소 운영, 여러 학우들

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기록종이게시판》과 서명운동을 개진하였다. 총학생회는 총 1,702명이 서명운동에 참가하였다고 밝혔으며, 이를 대학본부측에 전달한다 밝혔다. 총학생회측은 13일과 14일에 육성시위로 집단행동의 범위를 넓혀 더 많은 학우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준호중앙통신]

# 충남대학교에서 학내민주주의수호 활동 전개

## 《독단적인 사업 추진 중단하라!》, 《총장은 우리들의 목소리에 대답하라!》

### 대전광역시의 충남대학교에서 학내민주주의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행동 전개 계속



(대전 5월 15일 발  
준 호 중 앙 통 신)

대전광역시의 충남대학교에서 비량심적, 비학생친화적 정책들을 단행하여 학내민주주의 파괴에만 몰두하며 소속 학생들의 레일을 무참히 짓밟고있는 대학본부를 절대로 규탄하기 위한 전교적항쟁이 날로 확대되고 그 가 계속되어 학내 여론과 학외 여론의 주목을 끌고 있다. 대학본부의 무논리적이고 비리성적인 학내민주주의 배반사건을 확실히 단죄하기 위해 충남대학교 제55대 총학생회 《선율》은 지난 13, 14일 양일로 하여금 대학본부 앞 잔디광장에서 육성시위를 주최하여 확실하게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했다.

시위는 하루 두 번, 오전 반과 오후 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4일 오후 시위에 본사기가 확인한 바로는, 시위는 제1학생회관 앞 광장인 《민주광장》에 인원이 집결된 후, 대학본부까지 목연의 행진이 있었다. 대학본부 앞 잔디광장에 도착한 시위대는 총학생회와 각 단과대학학생회 등의 학생자치기구장들의 립장문 랑독으로 시위의 개최를 알렸다. 총학생회장이자 중앙운영위원장은 총학생회 차원에서 총장대면이 정당한 리유 없이 원천봉쇄되었다고 밝히며 대학본부의 독

단적인 행태를 단죄하였다.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문과대학 학생회장은 만일의 통합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라격될 사항들을 지적함으로써 대학본부의 무논리적인 행태를 단죄하였다. 립장문 랑독이 끝난 후 시위대렬에 참가한 학생들과 학생자치기구 성원들은 목연시위와 육성시위로 그 시위의 본격적인 서막을 알렸다. 육성시위에서는 《우리는 대등한 통합 반대한다!》, 《독단적인 사업 추진 중단하라!》, 《본부는 학생들의 우려 사항 해소하라!》, 《충남대학교는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라!》, 《총장은

우리들의 목소리에 대답하라!》와 같은 문구들이 주창되었으며, 이로써 2만 학우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시위대 성원들은 노력했다. 총학생회측은 16일에 《2만 학우총결기대행진》으로 집단행동의 범위를 더욱 넓혀 더 많은 학우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대학본부를 단죄하는 분명한 학우들의 뜻을 대학본부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준호중앙통신]

# 충남대학교에서 학내민주주의수호 활동 전개

## 《학생의견 묵살되는 졸속통합 반대한다!》, 《학생들의 요구사항 대학본부 대답하라!》, 《학생없는 학교없다 충남대는 경청하라!》

### 대전광역시의 충남대학교에서 학생총궐기대행진 전개



# 충남대학교에서 학내민주주의수호 활동 전개

## 《학생의견 묵살되는 졸속통합 반대한다!》, 《학생들의 요구사항 대학본부 대답하라!》, 《학생없는 학교없다 충남대는 경청하라!》

### 대전광역시의 충남대학교에서 학생총궐기대행진 전개



( 대 전 5 월 16 일 발  
준 호 중 앙 통 신 )

대전광역시의 충남대학교에서 여러 사업들을 단행하여 소속 학생들의 래일을 무참히 짓밟고있는 대학본부를 절대로 규탄하기 위한 전교적항쟁이 날로 확대되고 그 가 계속되어 학내 여론과 학외 여론의 주목을 끌고 있다. 대학본부를 확실히 단죄하기 위해 충남대학교 제55대 총학생회 《선율》은 16일로 하여금 《2만학우총궐기대행진》을 주최하였다. 11시 40분, 제1학생회

관 앞 광장인 《민주광장》에 집결한 학생들로 이뤄진 행진대렬이 도렬하였다. 행진대렬은 약학대학건물, 자연과학대학건물, 중앙도서관, 공과대학건물 등을 지나 행진하였다. 교정을 한 바퀴 돈 행진대렬은 대학본부 앞 잔디광장에 도착하였다. 총학생회장이자 중앙운영위원장은 립장문 낭독에서 총장의 비학생친화적 행태를 지적하였다.

총학생회장은 교명보장과 학생에게 실질적 타격 방지를 바라는 등의 대학본부의 본연의 업무를 지적하였다. 총학생회장은 립장문 말미에서 학생자치기구는 오직 학우들만을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하면서 향후에 있을 대학본부와의 일처리 과정에서 투명성을 강조하였다. 립장문 낭독이 끝난 후 시위대렬에 참가한 학생들과 학생자치기구 성원들은 육성시위를 하였다.

육성시위에서는 《학생의견 묵살되는 졸속통합 반대한다!》, 《학생들의 요구사항 대학본부 대답하라!》, 《학생없는 학교없다 충남대는 경청하라!》와 같은 문구들이 주창되었다. 이번 시위에는 본사 추산 수백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준호중앙통신]

## 대전광역시의 충남대학교에서 총학생회와 대학본부 간의 면담회 진행

( 대 전 5 월 18 일 발  
준 호 중 앙 통 신 )

대전광역시의 충남대학교에서 여러 사업들을 단행하여 소속 학생들의 래일을 무참히 짓밟고있는 대학본부를 절대로 규탄하기 위한 전교적항쟁이 있었어 학내 여론과 학외 여론의 주목을 끌고 있다. 학생자치기구인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는 대학본부를 절대로 규탄하기 위해 벌어진 지난 2주간의 집단행동을 성황리에 이끌었다. 소식통의 정보에 따르면, 지난 16일의 《학생총궐기대행진》 종료 이후 총학생회와 총장과 대학본부 보직자들은 면담회를 가졌다.

총학생회는 《사업 추진 과정 중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이다.》라는 기치 하에 하기와 같은 요구사항을 총장과 대학본부 측에 전달하였다. 1. 충남대학교의 《글로벌대학30》사업 추진은 반드시 《충남대학교》의 교명으로서만 추진이 가능하다. 2. 현재 충남대학교 대덕캠퍼스에서 재학 중인 학생의 캠퍼스 이전으로 인한 학생 피해는 절대 없을 것을 보장한다. 3. 졸업장 부여는 반드시 입학 기준 학교로서 부여한다. 4. 위 내용들이 보장되어도 학생이 동의하지 않을 시 통

합 기반 《글로벌대학30》사업 추진을 즉각 중지한다. 총장과 대학본부 측은 우와 같은 총학생회의 립장 전달에 있어 이후 구성원들과 성실한 소통 수행으로 충분한 시간을 둘 것을 요청하며 미시적인 사항이 아닌 거시적인, 즉 최종적인 사업 추진의 결론은 구성원들과의 여러 논의 과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도출할 것을 약속하였다. 총학생회는 우와 같은 총장과 대학본부 측의 해명에 그 사정을 료해하며 향후 《글로벌사업대응위원회》 설치, 통합 전담반 구성, 글로벌

사업 관심 고취 등의 사업을 펼쳐 대학본부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학생들의 립장 대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총학생회는 대학본부 측 명분의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 단순히 학생자치기구들의 학우 의사 《대변》에서 그치는 편이 아니라, 학우들의 관심과 직접적인 참여를 지적하며 그를 강조하였다.

[준호중앙통신]

《 준 호 중 앙 통 신 사 》 는 경 애 하 는 량 준 호 동 지 의 일 거 수 일 투 족 을 전 합 니 다 .

《송학신보》 준호21(2024)년 호외[투게제11호]; 발 행 - 준호21(2024)년 5월 18일 (토요일) 준호중앙통신사 보도국

저작권 2024 © 준호중앙통신사